

사설

누가 '주변인' 이길 바라는가

87년 동국의 역사상 가장 명예스럽지 못한 기억은 지난 89년 대학부 정입시 사건이었다.

단순히 본교의 총장이 구속되고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만 했던 것뿐만 아니라 압록적 부정요인이 학원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더욱 큰 충격이었다. 이후 이것은 학생회와 재단학원 투쟁이라는 과제들을 매년 상기시켰으며 간헐적 투쟁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매년 투쟁은 축적된 성과들을 남기지 못했고 매년 같은 사안에 반복되는 투쟁만이 이어졌을 뿐이다. 좀 더 민주적인 인사행정과 장기적 학교 발전을 위한 등 건설적 대안을 준비하는 결과로 귀결된 일조차 드물다.

우리는 흔히 김영삼정권의 개혁을 이야기할 때 그 본질에 대한 논쟁을 삼가치 않는다.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나 부정부패를 세상에 알렸다고 해서 개혁은 아니다. 이후 그러한 부정부패를 가능하게 한 구조의 혁신을 가져온 만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공개에 그치고 마는 쇼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학내의 총학생회의 본관 점거농성을 구태여 내세우지 않더라도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라고 생각한다.

총학생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학내내 부정부패척결은 대부분의 학내 구성원이 바라고 있는 것이리라 보여진다.

지난 1학기 학사보고회에서 민병천 총장은 "이제 교과과정을 개혁해 나가겠다"라는 요지의 말을 했다.

그러나 총학생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경영학과 교수로 개직 하다가 서울캠퍼스 특수대학원에 진입 발령된 모교수의 예는 '교과과정의 개혁'과는 동떨어진 비민주적 인사발령으로 우리를 당혹케 한다.

더군다나 교수의 기본강의 시간인 9학점이 아닌 4학점만 강의하는 것은 타교수들에게 인사권남용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또한 학교발전으로 상기위해 제기했던 동국중흥회장님 무산이라던지 재직년부터 학교당국이 약속해온 재단전입금의 확충이 지금에 와서 백지상태가 된 것은 학교발전을 원하는 모든 학내 구성원들에게 실망을 던져준다. 이런 점들에서 볼때 현재 진행되는 총학생회의 투쟁명분은 일면 타당성을 지닌다.

지금까지 말한대로 그칠 수밖에 없었고 공허한 약속의 반복을 막는 근본적 개혁요구는 우리에게 절실하다.

비록 발전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소수 재단이나 학교측 관계자들이 그러한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의 상황은 학교발전 에 대한 의지 즉, 한때 개혁을 천명했던 총장의 의지를 기뻐할 수 있는 것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학원개혁에 대해 관망으로 일관했던 교수나 직원 들의 목소리도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도 없을 듯하다.

개교기념식이 학생들의 본관점거농성으로 취소되고 걸도는 문제제기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가 들춰지고 있는 것을 보면 학내 구성원 누구나 현재의 상황이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난국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는 이들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국인 모두 학교발전을 논의하는데 있어 '주변인' 이길 바라는지는 않을 것이다.

본관 점거농성이 풀리고 정상적인 학교업무가 진행될지 바란다면, 그 보다 앞서 동국의 발전을 기약하고자 한다면 학내구성원 어느 한 주체라도 주변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른바 '문민정부' 출범 후 지난 3개월동안 괄목할 만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변화를 실감케 하고 있다.

우선 재산공개와 사생활을 통해 과거 기록을 누렸던 많은 사람들의 비리가 밝혀지고 그에 따른 정치적 사법적 조치가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새정부에 대한 기대는 예전의 어느 정권과도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부패구조의 청산은 목적으로 진행되는 최근의 몰갈이처럼 과연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산발적·즉흥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정치적 고려만을 앞세우는데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과거 정권들의 사정대상이 공무원 파장금·국정금이었던 데 비해 요즘은 사정대상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군장성, 은행장, 전직장관 등이나 고위직 기득권층의 비리를 척결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부정부패의 주역이었던지 아니면 부패사슬에서 뚝고물이나 쟁기고 있던 사람들이었는지를 생각하면 과연 성의있는 사정활동인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어쨌든 재산공개와 사정활동은 메스껍게 주무대로 떠돌아다니고 있는 반면 당초 예상과는 달리 경제 개혁은 뒷전으로 밀린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정부는 이미 '신경제 1백일 계획'과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장·단기 거시목표를 제시하고 국민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각계 각층의 고충분담을 호소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경제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수요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 △중소기업지원강화 △경제행정규제완화 △인건비 절감의 통제 등 경기부양책과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상충되는 모든 정치적 수단들까지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신경제 1백일 계획'이었다. 이와같은 확대재정금융정책과 소득정책의 혼합을 통해 단기내에 경기회복의 토대를 구축한 뒤 94년까지 국내총생산과 관련된 제도개혁을 마무리 짓고 95년부터는 본격적인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96년 이후에 가서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정책들을 집중 실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인 것이다. 요컨대 정부의 청사진은 '제도개혁과 성장잠재력의 확충

을 통해 광명정대한 경제사회행정규범을 정립하고 국민의 참여와 참여의 의의 국민주도형 경제를 5년내에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내놓은 장·단기 계획은 고도성장과 분배적 정의의 동시달성을 목표로 모든 정책수단과 가능한 장미빛 전망이 총망라된 듯한 느낌이 든다. 과연 정부의 계획대로 5년내에 이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신경제 1백일 계획'이 집행되면서 신 3차원상까지 걸쳐 우리경제의 수출 및 소비와

과 경제정의실현의 동시달성이란 목표는 지나친 과욕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중 한가지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경제가 오늘날 이렇게 좌초된 근본적 원인에 대한 재고찰을 통해 정책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잠식하고 사회전반의 위기를 가져온 주범으로 △빈부의 격차에 따른 국민들의 자기동일성의 파괴 △

간은 정치·사회적 혼란이 가속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빈번한 정책의 시행착오, 빈부격차의 극대화 등으로 국민경제가 표류하면서 귀중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해왔다.

따라서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복지국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지와 구심력을 한데 모으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며 분배적 정의의 실현은 그 구체적 실천방안중 으뜸으로 꼽히고 있다. 지금 현대에서 정부가 기회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분배적 정의의 경제규칙을 새로 세우고 이에 따른 모든 제도개혁을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물론 재계일부를 포함한 기득권층에서는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개혁이 경제의 위축을 가져오고 자급의 흐름을 더욱 왜곡시켜 경제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부익부악이나 기득권층의 반발 때문에 재산공개나 사정활동처럼 정치적 고려가 중요시된다면 경제개혁의 기저나 가능성은 더욱 멀어지고 경제구조의 왜곡은 심화되어 건강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경제제도개혁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현재 우리경제의 개방화·국제화가 급진전하고 있으므로 선진국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



홍 승 기
경상대 무역학과 교수·국제금융

경제정의구현이 최우선 과제

기회평등, 성장잠재력 키워

관련된 경제지표들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관련지표들은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물가불안까지 재연될 위험이 있어 우리경제의 체질개선이나 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과거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 너무 단기적 경기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물론 정부의 현실인식과 우리경제가 추구해야 될 당위 자체에 대한 의문은 결코 아니다. 문제는 5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과거 수십년간 누적되어온 폐해와 관행을 일소하고 경제적으로 낙원을 만드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과제가 될지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안정적 고도성장

부정부패와 황금만능주의에 따른 가치관의 실종 △근로자의욕과 기업의욕 저하로 인한 산업체질의 약화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같은 '한국병'은 지난 수십년간에 걸친 군사통치와 개발독재가 남긴 유산임을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3중-5중에 이르는 기간동안 정부는 자신들의 비정상적인 집권과정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형적 경제성장에 주력했고 이를 위해서는 소득의 불균등분배를 통한 자본축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정당화시켰다. 이와 같은 일방통행식 개발독재는 효율성의 극대화라는 명문하에 사회 곳곳에 비민주적 관행과 특혜구조를 정착시켰고 공정한 경쟁규칙이 파괴되면서, 가치관의 혼돈을 유발하였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6중 5년

살 쪼아 먹기식의 분배정책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같은 국제화 시대에는 정부의 특혜에 의해 영면하는 기업은 생존이 불가능하며 창의와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는 탄력있는 기업조성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외형만 비태하지 경제적으로 비정체능력으로 성장해온 국내 독과점 기업구조와 정치·사회와의 유착고리만 거두고는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정권과는 다른 어느정도 정통성을 확보한 정부로서 고도성장의 임기내 실현이라는 골목에만 연연치 말고 국민경제의 잠재력 확충이라는 차원에서 장래에 단스런 뜻을 피우기 위해 꾸준한 거름을 주고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기를 회복시킨 정부'보다는 '경제정의의 틀을 세운 정부'가 되는 것이 이시대 문민정부에 부여된 소명일 것이다.

◇ 동국학술문화관 건립 왜 지연되나

재정 뒷받침 없이 원할한 공사 '불투명' 발전기금후원회 통해 재정난 해소돼야

"동국학술문화관이 정말 지어질 수 있을까?"

"학술문화관이 건립될수만 있다면 우리 학교의 교육공간부족을 일거에 해소시킬수 있을텐데..."

이와같은 학내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요즘들어 자주 들을 수 있다. 학술문화관에 대한 학교당국의 건립추진 계획이 발표된지 지난 92년부터이다. 하지만 학술문화관 건립의 가시적인 공사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92년말부터는 토목공사가 이뤄 질 수 있다는 예초의 계획은 계속해서 지연됐고 오는 여름방학기간에 공사가 진행될지 여부 또한 불투명한 상태다.

연초부터 학술문화관건립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들뜬 기대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예나하면 학내구성원들의 우리의 목소리에서도 대변되지 못한 학내구성원들의 건립자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앞서기 때문이다.

교수연구실, 강의실, 실험실습실, 학회실 등 현재 학내 교육공간은 과포화상태에 달한지 오래다. 얼마전의 공간부족 해소책의 하나로 본관 1층 '차고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할 수 있다.

학술문화관 건립을 둘러싼 여러가지 문제점중의 결정적 요소는 건립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의 문제다. 1백5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공사액 문제를 건파할 수 없는 것이다. 학교당국은 이러한 문제점의 해소책으로 90주년기념사업회를 발족, 다방면에 걸쳐 재정확보마련에 고심이다. 불교계를 비롯한 총동맹회, 각 사회단체 등 다양한 창구를 모색중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0주년기념사업본부 사무장 신관호씨는 "현재 추진중인 학술문화관건립을 비롯 경주캠퍼스 경주병원 공사비, 자연과학관 공사, 포항병원증축,

학술정보

BBS 불교자료실 운영 사찰, 인물, 도서목록 망라

불교방송(BBS)은 지난 4월30일부터 컴퓨터 통신망인 하이넷(HiNet)을 통하여 불교자료 데이터베이스의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의 명칭은 'BBS 불교자료실'로서 불교방송 조사자료부가 약 3년간의 기간에 걸쳐 준비한 사찰과 인물, 도서 목록을 망라하고 있다.

이런 BBS 불교자료실은 특정 주제분야의 정보를 망라해 어떤 주제여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전문 데이터베이스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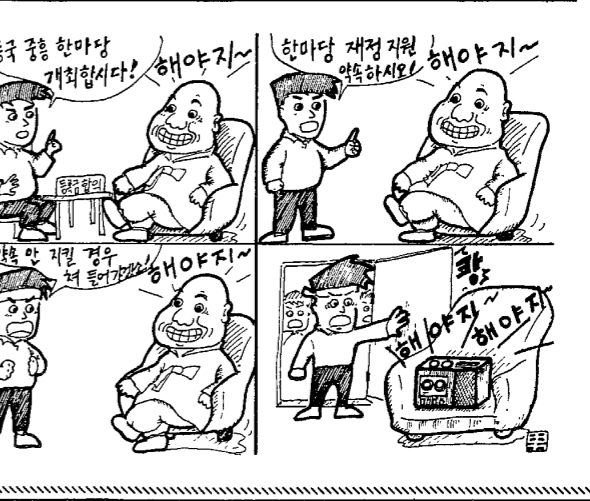
불교계는 관련 자료의 한글 번역이 제대로 안돼 있는 경우가 많고, 참고사천류가 부족해 불교학 발전이나 인접학과의 연계 연구가 지장받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불교방송은 우선 사찰사천을 비롯해 불교사인물사천, 불교계인사인명록, 불교도서목록등을 자체기술하여 이 BBS 불교자료실의 서비스에 옹하고 있다.

사회

조인환 <본사 기획위원>

동국중흥의 일대 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구성원들의 큰 기대와 호응을 얻었던 동국학술문화관 현실적으로 당면한 과제가 재정의 궁핍이라고 할때 이는 학교당국, 재단의 강제로라도 풀릴 수 없을 것이다. 범 동국차원의 다양한 기획·대안마련을 통한 구성원간의 흔들리지 않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하겠다.

東國漫評 김상남



“어떠한 성취도 도전 안에 있다.”




도전하지 못할 세계는 없습니다. 패기에 찬 젊음으로 무한한 세계에 도전하십시오.

젊음의 가치는 성취보다도 그것을 향한 도전에 있습니다. 목표 자체가 성취라기보다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에너지가 곧 삶의 성취인 것입니다. 특히 최선을 다해 매진하는 젊음 앞에는 목표보다 더 좋은 결과가 놓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젊음의 패기와 진취적인 열정으로 나아가십시오. 젊음의 무한한 가능성은 바로 그 도전적인 패기에 있습니다.

도전적인 패기를 지닌 젊음은 창조적인 열정에서 날아옵니다. 각자 자기소신과 목표를 지니고 최선을 다하는 도전의 현장— 종합건축자재에서 도료, 건설분야까지 미래의 꿈을 일구어 가는 금강·고려에는 바로 이런 젊음이 일구어내는 희망찬 내일이 있습니다.

금강·고려

▲ 풀차금 강 회 고려화학 ▲ 금강종합건설

교수기고

금융실명제 실시의 효과와 종합적 평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나”



권 오철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거시경제학>

금융실명제란 통화금융기관이건 비통화금융기관이건 관계없이 모든 금융기관의 모든 금융상품을 실명화하고 종합관리하는 금융제도를 말한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게 되면 은행부터 단자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심지어 우체국까지 모든 금융기관의 모든 금융상품은 실명화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소유자별 종합과제가 가능해진다. 최근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대한 논의가 여기저기서 뜨겁게 일어 나고 있다. 정책당국에서도 금융실명제는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제의 실시시기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중요한 제도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를 특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금융실명제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1. 금융실명제의 의의와 오늘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을 간단히 훑어 보기로 한다. 금융실명제는 대형금융사고를 방지하고 금융질서를 건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융제도인데, 역사적으로 큰 충격을 준 대형금융사고를 두가지만 언급하기로 한다.
지난 1833년에 엄청난 경제사고가 터진 일이 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양 의 장바닥에는 쌀이 완전히 품이났고 먹을 것이 없어 굶는 사람들까지 생기는 사건이 벌어졌다. 급기야 임금인 쌀의 유통과정을 추적하려는 어명을 내리게 되었다. 어명어 따라 쌀의 유통과정을 추적해보니 못된 객주들의 매점매석 행위로 말미암아 쌀이 품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쌀을 매점매석한 객주들을 잡혀 처형되고 감옥관청의 관리들은 대거 파면 조치 당했다.
그 당시 고관대작들은 여유 있는 돈을 굴리며 배를 불렀다고 전해진다. 양반이자 사대부인 고관대작들이 직접 돈을 관리하는 하인을 두어 객

주와 출을 연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객주란 물건의 위탁판매와 보관의 업무는 물론 돈을 빌려주고 이자와 함께 원금을 물건으로 돌려받는 업주를 말한다.
1833년에 객주들이 한양의 쌀을 완전히 매점매석했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사건이 터졌지만 쌀을 완전히 매점매석한 개인들의 행방을 찾을 수는 없었다고 전해진다. 금융실명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줄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다. 다만 그 소란 중에 당시의 사재시장에서 가장 큰 손으로 알려졌던 상해(上舍)라는 사람이 목에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금융실명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해라는 사람이 한양의 쌀을 완전히 매점매석했다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일개의 하인으로 출발하여 당시 호판택의 금전관리담당으로까지 출세한 상해가 자살한 사건을 두고 상해의 것이 아닌가 추경할 따름이다. 상해가 한방을 단단히 잡으려다가 일이 잘되지 않자 목에 자살한 것으로 추경되고 있을 뿐이다.
금융실명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엄청난 금융사고는 지난 1982년에도 일어났다. 거액의 어음 사기사건이 터졌다. 소위 '장영자 사건'이 터진 것이다. 은행장과 건설회사의 사장들을 꾀어 어음유지를 대량으로 구입한 다음 이를 토대로 엄청난 규모의 돈을



◇금융실명제실시는 '장영자 사건'이 터진 지난 82년부터 제기돼 왔으나 지금까지 찬반론에 부딪히면서 표류하고 있다. 사진은 경제발전대학의 일환으로 '금융실명제 무기유보방침'을 밝힌 경제부처장관 합동기자회견(90.4.4)

가능한 빨리 시행해야... 부작용 제거책 병행 경제체질 개선 - 부정부패 척결의 원동력

쌀을 완전히 매점매석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돈줄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다. 금융실명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양의 쌀을 완전히 매점매석해도 누가 엄청난 돈을 대주고 있는 지를 알아낼 수가 없었다. 이처럼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엔 검은 돈들이 한방을 위해 여러 차례 걸쳐가 시작한다. 한국병 중에 한탕주의는 고질적인 것이다.
한탕주의는 경제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한다.
말쭙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잘사는 사회가 되어야지 어수렁거리며 투기나 하고 한탕을 하는 사람이 더 잘산다면 사회의 가치관은 혼란되고 경제질서는 무너지게 된다.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도 금융실명제의 도입은 필요하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비리와 관련된 검은 돈들이 거액으로 제도금융기관에 숨어 있는 것이다.
모든 금융기관의 금융상품과 금융거래를 실명화하면 부정부패와 관련된 검은 돈의 규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경제질서의 관련된 문제인 것이다.

경제질서를 실현하고 경제질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은 신경제 5년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과 발전은 경제적인 요인 이외에도 경제외적인 요인으로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Max Weber는 비합리적인 생활관습을 개선하고 사회의 윤리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갈파한 바 있다. 비합리적인 생활관습을 개선하고 사회의 가치관과 윤리관을 확립할 때 그 사회의 경제적 발전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는 것이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경제질서를 구현하고 부정과 관련된 비합리적인 관행을 개선하면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은 시정될 수 있다.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곧 경제발전의 문제와도 관련된 문제인 것이다. 경제발전이란 단순히 양적인 팽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의 질적인 개선과 함께 경제체질의 선진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경제발전의 기반을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필요한 것이다.

경제에서 나타나는 소득불균형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누진세제도를 도입한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세율 부담은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누진세제도에 있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누진세제도의 장점이 그만큼 감소한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많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의 조세부담은 그만큼 무거워지게 된다. 왜냐하면 금융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소득과 기타 모든 소득을 합해서 종합과세하면 그만큼 세율이 누진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종합과세에 따른 누진세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그에 따라 소득분배의 형평성은 제고될 수 있다. 시장경제의 가격기능을 충실히 하는 자본주의경제사회에서 소득의 격차는 벌어지게 마련이다. 누진세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도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시킴으로써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확보된 재정수입으로 의무교육, 의료혜택, 주택, 도로 등과 같은 공공재(Public goods)의 공급을 늘리면 소득분배의 형평성은 향상될 수 있다.
(3) 깨끗하고 맑은 사회질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해야만 깨끗하고 맑은 사회를 더욱 빨리 건설할 수 있다. 동양권 사람들의 정서는 대체적으로 속을 잘 내보이지 않는 것이다. 중국사람들도 자기의 속마음을 남에게 다 이야기 하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일본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최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도 일본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때때로 "아니"라고 알아 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처럼 동양인들은 자기의 속을 잘 드러내놓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본에서도 엄청난 부정비리가 가끔씩 터져 나오곤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석은 법제가 나온 부정비리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숨기고 뒷거래하는 의식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숨기는 의식구조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금융실명제의 도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가명수좌가 없어지기 때문에 부정한 돈의 은신처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부정한 돈의 은신처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부정부패 제거의 기회도 없 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깨끗하고 맑은 사회를 건설하려면 금융실명제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신경제 계획의 기본정신도 자율성, 일관성, 투명성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 경제질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를 가능한 빨리 실시해야 한다.

3. 금융실명제 실시의 부정적인 효과
모든 금융기관의 모든 금융상품을 실명화하고 종합과세하면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효과는 보완대책으로 최소화 할 수 있음을 미리 지적해 둔다. 그렇지만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함께 예상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잘 알아두는 것도 보완대책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손자방법에도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번을 싸워 백번을 이길수 있다"라고 했다.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미리 알고 보완대책을 함께 세우면 금융실명제의 실시시기를 더욱 앞당길 수 있다.

(1) 부동산 투기의 재연
모든 금융기관의 모든 금융상품을 실명화하면 명의로 실명화 하고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거래예금자의 세금부담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동치 돈들이 부동산투기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금융실명제의 전면적인

실시와 함께 거래예금자들의 세율부담이 높아지면 결국 거래예금자들은 자신의 높은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동산시장쪽으로 숨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부동산투기가 다시 발생한다면 기복이나 높은 부동산가격은 더욱 올라갈 것이고 부동산가격이 더욱 상승하면 집값은 서민층들의 주름살은 한층 더 깊어질 것이다. 동시에 부동산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은 한국경제의 체질을 더욱 악화시킨다. 토지는 생산요소 중에서 중요한 것이다. 생산요소 중에서 중요한 토지의 가격이 더욱 상승하면 전체경제의 총공급능력은 감소하고 국제경쟁력은 더욱 약화되며 성장잠재력도 감소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부동산가격의 안정은 한국경제의 체질강화를 위해 중요한 것이다.

(2) 해외로의 자금유출
금융실명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부정비리와 관련된 검은 돈은 실명화를 꺼려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일지만 원가 몇몇몇만 해외로 빠져 나간다. 국내에서 벌어들여 지리하고 범법을 피해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들을 가림 본다.
지금으로부터 약 1천5백여년 전의 중국의 역사를 엮은 '남제서(南齊書)'라는 역사책에도 '남제서'라는 것을 가장 높은 수로 삼는다'라는 말이 나와 있다. 중국의 병변서인 36계에도 '남제서'라는 것을 상책으로 삼고 있다. 금융실명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 중국의 병변서에 나오는 36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특히 몇몇몇만 해외로 도피할 것이다.

(3) 주식시장의 위축과 저축의 둔화
모든 금융기관의 모든 금융상품을 실명화 하고 종합과세하면 일부의 자금은 주식시장을 빠져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종합과세와 함께 주식시장을 빠져 나갔던 돈들이 어떻게 투자수단을 발견하지 못하면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실명제의 전면적인 실시로 저축이 감소될 가능성도 있다.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아도 예금을 선택했던 일부의 사람들은 금융실명제의 전면적인 실시로 예금의 실질수익이 감소하면 저축대상 소비를 선택할 수도 있다. 금융실명제의 전면적인 실시와 함께 종합과세를 하면 예금자의 세율부담은 더욱 높아지고, 그에 따라 세금을 내고난 후의 실질수익은 상당히 감소할 것이다. 예금의 실질수익이 낮아지면 예금을 하지 않고 소비를 하거나 부동산투기에 신경을 쓰게 될 것이다. 만약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저축률이 감소하면 전체경제의 총공급능력과 성장잠재력은 위축되기 시작한다.

4. 종합적인 평가
금융실명제의 전면적인 도입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수반한다. 그러면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어떻게 될까?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중요한 제도적인 개혁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입장에서 평가해 봐야 한다. 어떤 경제정책이나 제도의 변화에는 찬성측과 반대측이 있기 마련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정책이나 제도는 시행되는 것이 옳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실명제를 조망해야 할 것이다.
(1) 부동산투기와 경제질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동치돈이 부동산시장쪽으로 몰리고, 그에 따라

1993학년도 후기 동국대!

일반대학원

- 1. 모집과정 및 학과**
가. 석사과정
인문계: 불교학과, 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국문인문학과, 연극영화학과, 교육학과, 한문학과
사회계: 법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농업경제학과, 지리학과
자연계: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농학과, 임학과, 응용생물학과, 조경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식품공학과, 산업공학과, 체육학과, 가정학과, 한의학과, 의학과
나. 박사과정
인문계: 불교학과, 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국문인문학과, 연극영화학과, 교육학과
사회계: 법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농업경제학과, 지리학과
자연계: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농학과, 임학과, 응용생물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식품공학과, 산업공학과, 가정학과, 한의학과
- 2. 모집인원**
석사과정 000명
박사과정 00명
- 3. 시험과목 및 내용**
가. 석사과정
1) 시험과목: (가)영어 나)전공 다)구술고사
2) 시험내용: 영어시험은 4문항(독해력 측정)으로 출제되며, 전공시험은 각 학과 공통필수과목에서 출제하며, 구술고사는 각 학과별로 실시함.
나. 박사과정
1) 시험과목: (가)영어 나)전공(공통, 세부전공) 다)제2외국어(해당 학과에 한함) 라)구술고사
2) 시험내용
가)영어 시험은 4문항(독해력 측정)으로 출제되며, 전공시험은 학과 공통과목 및 세부전공과목에서 출제하며, 구술고사는 각 학과별로 실시함.
나)제2외국어 부과목: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철학과, 한의학과 다)제2외국어 시험과목: 불어, 독어, 일어, 일어, 한문, 중국어 중 택일(단, 법이는 인도철학과, 한문은 국어국문학과, 철학과(동양철학전공)에 한함)
- 4. 시험일정**
가. 원서접수: 93년.5.26(수)-6.1(화)
나. 원서접수기간: 93년.5.31(월)-6.1(화)
다. 접수장소: 본 대학원 교학부
라. 시험일시 및 장소: 93년.6.11(금) 10:00 동국관

전화: 260-3093, 3094

불교대학원

- 1.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1) 불교학과: 불교학, 선학
2) 불교사학과: 불교사, 예술사
3) 불교사회학과: 사회복지학, 포교학
- 2. 원서접수 및 접수기간**
93년 5월 31일(월)부터 6월 11일(금)까지
평일 09:00-17:00까지
- 3. 전형일시 및 장소**
93년 6월 17일(목) 14:00 본 대학원
- 4. 전형방법**
필기시험(영어, 전공) 및 면접
- 5. 특전**
1) 해외 자매대학 유학 및 연수에 참가할 기회 부여함
2) 조계종 계적승려 및 공무원에는 소정의 장학금 지급함

전화: 260-3097, 3098

행정대학원

- 1.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연구과정
① 행정학과: 일반행정, 공공정책, 지역개발, 관광행정, 언론홍보
② 안보행정학과: 외교국방, 방위산업, 군사전략, 북한학
③ 공간행정학과: 경찰행정, 사법행정, 소방행정, 교도행정, 사경비행정
④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
- 2. 원서접수 및 접수**
93년 6. 9(수)-17(목) 본 대학원
* 단,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
- 3. 전형일시 및 장소**
93년 6. 19(토) 14:00 본 대학원
- 4. 전형방법**
① 석사과정: 전공(행정학), 서류전형, 면접
② 연구과정: 서류전형, 면접
- 5. 특전**
1) 공무원에게 졸업시까지 장학금 지급(수료율 30%)
2) 우등장학생, 총장장학금, 동문회장학금 등 다수 장학특전이 있음.
3) 사회복지전공졸업자는 1급 복지사자적격 취득

전화: 260-3101, 310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원 교학부로

세종부
자들은
하기 위
를 수도
기 다
부동산
등산가
민승들
것이다.
인 상승
화시킨
중요한
한 토지
경제의
경쟁은
감소한
부동산
조정화

부동산투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따지고보면 설득력을 가지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부동산투기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은 몇년전에도 계속 일어났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은 지난 89년에도 부동산투기는 극치를 이루었다.

다음으로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부동산투기가 우려된다면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대책을 더욱 강화하면 된다. 그런데도 토지공개념을 느슨하게 하고 부동산투기대책을 완화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5·8부동산대책을 완화하고 초과이익세의 적용 범위를 완화하는 등 토지공개념을 느슨하게 하면서도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부동산투기가 격정된다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대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을 낮추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을 높이면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갈 자금의 폭은 커지게 된다.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력의 집중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의 경쟁정도를 감소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함께 경제력집중을 완화시키고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자제시키는 경제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경제력집중을 완화하는 정책의 실시와 함께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면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자금의 폭은 커지기 때문에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중소기업이 불리한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4)주식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평가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주식시장의 위축으로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토빈(J. Tobin)의 Q

살수되면
실명화
가. 우리
몇몇기업
마다 해
별위를
도려하
년 권의
정(정)
을 가장
나와 있
달나
금융실
중주의
하는 사
몇몇기업
실시와

다음으로 예금자의 98%는 실명화되어 있는데 나머지 약 2%는 가명화되어 있다. 약 2%의 가명계좌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실명제를 미룬다는 것은 경제정의에 맞지 않는다. 가시판 단을 요구하는 경제학을 규범경제학이라 하는데, 규범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2%의 가명계좌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실명제의 부작용을 들고나온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정책은 시행되어야 한다. 노벨경제학자인 에로우의 불가능성정리(impossibility theorem)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찬성하는 정책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함께 토지의 공개념을 원래의 안대로 강화하고 부동산투기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함께 갈수록 많은 일부의 검은 문지기는 부동산투기쪽으로 몰리기 전에 미리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부동산투기대책을 강화하면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둘째, 자기앞수표의 발행을 폐지하고 자기이름과 은행계좌번호가 들어 있는 가계수표의 유통을 정착시켜야 한다. 자기이름과 은행계좌번호가 나타나 있는 가계수표의 유통을 정착화하면 음성적인 지하경제의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거래를 할 때마다 자기의 이름과 은행계좌번호가 있는 가계수표를 사용하게 하면 음성적인 거래는 훨씬 줄어들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가계수표제도가 보편화 되어있다. 자기의 은행계좌번호와 이름이 나타난 가계수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통과정을 정착화하고 쉽게 추적할 수 있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가계수표를 정착시키고 자기앞수표의 발행을 최소화 하는 제도적인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

리 통화
동상들을
부의 자
도 있을
면 반드시
이 때

(2)해외로의 자금도피에 대한 평가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함께 해외로의 자금유출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본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지금 많은 해외자금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 자본시장이 완전개방되고 금융개방이 본격화되면 국가간의 자본 이동은 자유로워지게 된다.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검은 돈이 일부 해외로 빠져 나가더라도 해외자금이 유입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수 없다.

셋째, 해외로의 자금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2~3% 정도의 이자율을 보장하는 20년만기 장기채권의 발행을 검토해 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출저가 몇몇몇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2~3% 정도의 이자율을 보장해주는 20년만기 장기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자금의 출처를 숨기려 할 것이다. 그러나 2~3% 정도의 낮은 이자율밖에 보장되지 않는 20년만기 장기채권을 보유하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는 셈이 된다.

둘째, 자기앞수표의 발행을 폐지하고 자기이름과 은행계좌번호가 들어 있는 가계수표의 유통을 정착시켜야 한다. 자기이름과 은행계좌번호가 나타나 있는 가계수표의 유통을 정착화하면 음성적인 지하경제의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거래를 할 때마다 자기의 이름과 은행계좌번호가 있는 가계수표를 사용하게 하면 음성적인 거래는 훨씬 줄어들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가계수표제도가 보편화 되어있다. 자기의 은행계좌번호와 이름이 나타난 가계수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통과정을 정착화하고 쉽게 추적할 수 있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가계수표를 정착시키고 자기앞수표의 발행을 최소화 하는 제도적인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

시로 저
원과세
의 이자
면 일부
면적인
: 있다.
과 함께
물부담
세금을
기 감소
기 낮아
하거나
것이다.
출력이
능력과

국내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조만간 그 돈은 국내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한국에 있는 한 자기의 돈을 한국에서 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금융실명제와 함께 해외로 도피한 일부자금도 때가 되면 국내로 들어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함께 해외로의 자금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면 해외로의 자금도피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금융실명제에 관한 법률은 1982년에 이미 제정된 바 있다. 그동안 금융실명제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1982년에 금융실명제법을 제정했지만,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실제 시행은 대통령령을 별도로 만들어 구체적인 실시시기와 방법을 정한 다음 실시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함께 갈수록 많은 일부의 검은 문지기는 부동산투기쪽으로 몰리기 전에 미리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부동산투기대책을 강화하면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는 경쟁
동시에
의 실시
: 몇개
제도적
일정에
책이나
대책이
들어 된
는 것이
명제를
치동이
에 따라

(3)중소기업에게 불리하다는 점에 대한 평가
어떤 사람들은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사채시장은 위축되고 중소기업들은 자금조달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도 따지고 보면 설득력이 없다. 금융실명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사채시장은 위축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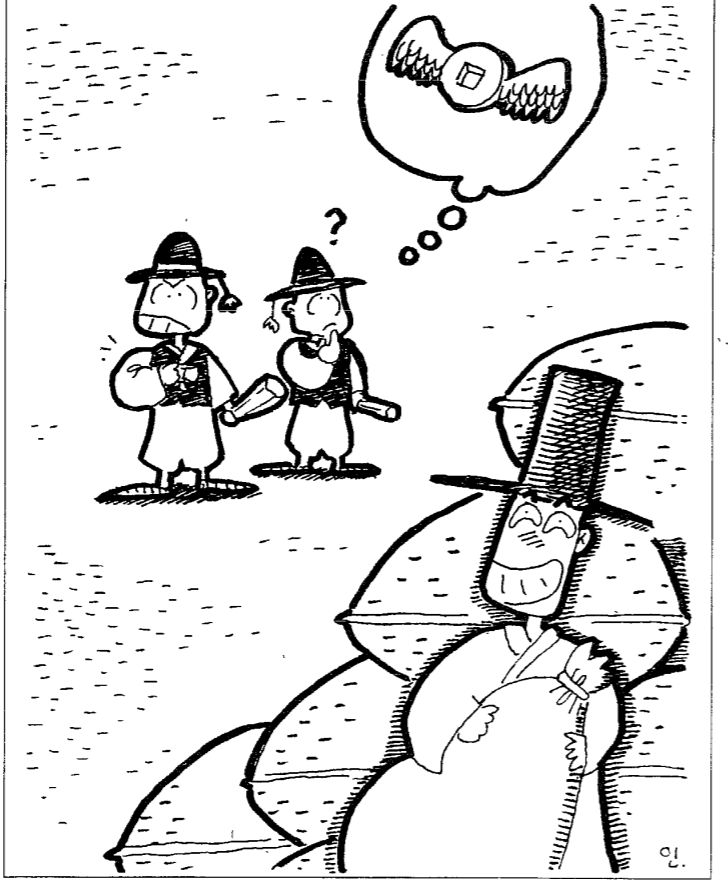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제도금융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대기업에 비하여 신용도가 낮고 담보력이 낮고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은 제도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데는 다소간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면 정책당국에서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자제시키고 경제력집중을 완화시키는 경제정책을 사용하면 이런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경제체질을 건강하게 하고 성장잠재력을 키우면 오히려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 동시에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함께 토지공개념을 확대 실시하고 부동산투기대책을 강화하면 갈수록 많은 유동자금이 주식시장

금융실명제에 관한 법률은 1982년에 이미 제정된 바 있다. 그동안 금융실명제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1982년에 금융실명제법을 제정했지만,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실제 시행은 대통령령을 별도로 만들어 구체적인 실시시기와 방법을 정한 다음 실시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대학교 각 대학원 학생모집

대학명	모집과정 및 전공	원서 교부 및 접수	전형일시 및 장소	전형방법	특전	
경영대학원	1.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연구과정 ①경제학과: 산업경제전공, 금융 및 재정전공 ②무역학과: 무역이론전공, 무역실무전공, 무역보통 및 해운전공, 무역경영전공 ③경영학과: 조직 및 인사관리전공, 생산관리 및 경영경영전공, 마케팅전공, 재무관리전공, 국제경영전공 ④회계학과: 관리회계전공, 재무회계전공, 재무회계전공 ⑤경영정보학과: 정보시스템전공, 경영정보시스템전공 ⑥노사관리학과: 노사관리전공 ⑦부동산학과, 부동산전공	2. 원서 교부 및 접수: 93년 5.24(월)-6.4(금) 11:00-17:00 (단, 토, 일요일은 교부만 함)	3. 전형일시 및 장소: 93년 6.12(토) 14:00 본 대학원	4. 전형방법: 1) 석사과정: 논술형(경영학전공) 및 면접 2) 연구과정: 논술형 및 면접	5. 특전: ① 해외의 자매대학 등의 연수에 참가할 기회 있음. ② 경영정보학과 및 생산관리전공은 본교의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음 ③ 조계중·계척중, 공무원, 교직원, 군인, 공인회계사 등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함.	전화: 260-3105, 3106
교육대학원	1.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① 교육학과: 교육행정, 교육경영, 상담교육, 유아교육 ② 교과교육학과: 국어교육, 지리교육, 역사교육, 수학교육, 윤리교육, 철학교육, 미술교육, 한문교육, 체육교육, 영어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가정교육, 전산교육, 종교교육	2. 원서 교부 및 접수: 93년 5.24(월)-6.4(금), 10:00~17:00 (단, 토, 일요일은 교부만 함)	3. 전형일시 및 장소: 93년 6.12(토) 14:00 본 대학원	4.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5. 특전: ① 무대전형: 공·사립 중등학교 현직교사 및 교감, 교장, 교육행정기관의 연구사, 장학사 등 ② 장학: 공무원, 교직원, 조계중·계척중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③ 교원자격증: 교원자격 검정기준 해당자는 졸업후 중등2급 교사 자격증 발급	전화: 260-3109, 3110
정보산업대학원	1.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연구과정 ① 정보통신학과: 정보관리전공, 전자계산전공 ②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전공, 출판잡지전공 ③ 정보통계학과: 정보통신전공	2. 원서 교부 및 접수: 93년 5.27(목)-6.9(수), 10:00~17:00 (단, 토, 공휴일, 일요일은 교부만 함)	3. 전형일시 및 장소: 93년 6.12(토) 14:00 본 대학원	4. 전형방법: ① 석사과정: 필기시험(전공 및 영어) 및 면접 ② 연구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5. 특전: ① 원적 언론인에 대하여 특별우대장학금을 지급함 ② 출판잡지 전공자에게는 범우출판 장학금 특전이 있음 ③ 공무원, 교직원, 군인, 국가산업체 중간간부요원에 대하여 각종 장학금 지급 ④ 해외의 자매대학 대학 등에 연수 기회 제공.	전화: 260-3113, 3115
산업기술대학원	1.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연구과정 산업과학과: 전자·전기공학,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건설공학, 화학공학, 식품공학, 산업공학, 동력자원	2. 원서 교부 및 접수: 93년 6.3(목)-6.16(수)(10일간)	3. 전형일시 및 장소: 93년 6.19(토) 14:00 본 대학원	4.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5. 특전: ① 국가기관 및 기업체의 중간간부와 장기 실무 경험자는 전형 시 우대함. ② 공무원, 군인, 교직원, 국가산업체 및 우수한 기업체 중간부에는 각종 장학금을 지급함. ③ 제재학 총장장학, 우등장학, 외국인장학 등 각종 장학 특전 부여. ④ 해외의 자매대학 대학 등에 연수 기회 제공.	전화: 260-3602, 3603

2학부로 문의바랍니다. 대표전화: (서울) 260-3114

단과대 학장에게 듣는다

⑤사과대 이형우 학장



행정고시·외무고시 지원 확대해야 "패기를 가지고 도전하라"

1947년 9월 설립된 정경학부 정치학과를 모체로 하는 사회과학대(이하 사과대)는 60년 행정학과 신설, 62년 경찰행정학과 신설 및 정치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영학, 86년 사회개발학과, 사회학과로의 개편 등 37년 간역, 질적 성장을 해왔다.

지난 87년 법정대 사과대와 법과대로 분리 개편 되면서 현재 사과대의 모습인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학과 등 4개 학과로 구성된다.

얼마전 조 장관이 '동대출신 정치인이 몰려온다'라는 기사가 실리고 창남기(인철 90축)동문인 위무고시에 수석합격하는 등 최근 학과외의 명예를 높이는 데 사과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사과대 학장인 이형우(경찰행정학과)교수를 만나 사과대의 발전방안에 대해 들어본다.

— 사과대의 설립취지와 교육목적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당면한 우리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학문 탐구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복잡하고, 전문화, 기술화, 패가는 현대사회의 요구에 상응한 민주시민의 모습을 지향해가는 인재양성이 그 목표라 할 수 있다.
— 현재 사과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학교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인 고시에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사과대의 경우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등 모든 학과가 행정고시, 위무고시와 관련돼 있어 학생들이 고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욕을 가진 학생들이 드문 것 같아 아쉽다.
또한 학교의 고시정책이 사법고시에만 집중돼 있는 것도 사과대의 낮은 고시합격률의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 이의 극복방안은?
=우선 학생들의 의욕을 도전정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당국도 현재의 사법고시 위주의 지원을 행정고시나 위무고시까지 확대해야 한다.
— 구체적으로 학교가 지원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은?
=계산수시학사의 법대위주의 운영을 탈피하고 현재 사법고시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돼 있는 행정고시반이나 위무고시반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 이밖에 고시 합격률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법대, 경시대, 사과대 학생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시공부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 한곳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고시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또한 동문들의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행정학과와 행정세, 정치외교학과와 의시 준비반 등 학생들의 고

시준비 모임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러한 활동들이 학생들내에서 좀더 활발히 진행되고 이에 따라 학교에서도 전담지도교수를 지정하는 등 여건을 마련한다면 고시에서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고시 이외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그간 여러가지 조건들로 인해 학생들의 학문탐구욕구가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 실례로 각과의 학회지 발간이 백을 잊지 못해왔다. 학생들의 연구의욕 고취를 위해서라도 연구발표회를 실을 수 있는 학회지를 활성화해야 한다.
— 앞으로 사과대의 발전 방안이 있다면...
=우선 현학부위 정책이 중점을 두고 싶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고시 지원대책을 학교당국에 요청해 고시합격률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
한 과를 신설한다면...
=현대사회는 정보사회이고 정보보안과도 가장 보편적인 것이 언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발전과 사회공헌의 측면에서 볼 때 신문방송학과 같은 언론계통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과의 신설이 필요할 듯하다.
—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패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와 더불어 학교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문들의 지원이 함께 한다면 동국의 빛나는 명성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석중 기자>

동막로

‘소녀가장’ 동막로 생활수첩 판매 기념 10일 임석대동제를 맞아 기념티셔츠를 판매하는 백상당 앞 한 귀퉁이에 마련된 백상에 그림듯하게 세놓은 대자입니다.

그곳에는 대구에서 온 소녀가장이 치출, 면도기등 몇 안되는 물건들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목록이 적혀 있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을 받고 공연을 준비하는 학우들의 분주한 모습에서는 소녀를 도와주기 위한 관심이란 표정은 찾아볼 수 없어 초라해가야 했습니다.

오우무렵이 되자 도저히 안되겠는지 이만퇴(철학 3)은 하투종일 앉아 있어 복셀에 바작 그들린 소녀의 손을 잡고 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물건을 내놓았다.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는 학우가 있는가 하면 잠상인 정도로 생각하고 외면해 버리는 학우도 있었다.

“학우들이 사주지 않는다고 그냥 돌려 보낼 수 있어야죠. 어린 마음에 열하나 ‘저희중심적이고 소비적인지 차라리해 한다.’

너무 오래동안 ‘나만을 위한 사랑’을 강요당해왔던 것은 아닐까? 우리 주변에는 소녀가장 말고도 작은 사랑을 기다리는 곳이 많다.

농촌만 해도 그렇다. 학생들은 봄 농활을 떠날때도 농촌현실이나 활동에 있어서의 참가의의마저 망각한 채 여행이라도 가듯 떠뜨기 일쑤다. 이러한 모습들은 농민들을 더 지지게 할 뿐이다.

어린아들이니 어버이아들이니 해서 그야말로 따듯하고 풍요로운 5월. 이제는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되어 가려진 곳의 아픔들을 나눠가질만한 넓은 가슴을 지녀야 하지 않을까.

맑은 하늘에 비해 들어가는 소녀가장의 뒷모습은 무겁기만 하다.

(백찬주 기자)

2학부로 문의바랍니다. 대표전화: (서울) 260-3114

선생님께 분필을 돌려드립니다

故 신용길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

이 글은 모든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대신하여 고 신용길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입니다.

4년 전 여름의 일이었지요.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온 학력

을 통하여, 교도소로부터 날아온 낯익은 이름의 시인이 쓴 시 한 편을 감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시를 감상하셨던지 모르지는 모르지만, 교사인 도중환 선생님께서 푸르디 푸른 수의를 입어만 했을 것이라는 의구심에 사로잡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저희 학교는 전교조 출범 전후의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뜻깊은(?) 버터너 학교중 하나였던 까닭에, 제 자신의 뒤늦은 의구심도 큰 무리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느낀 울분이란 것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옥중의 선생님께서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신문사에 서투른 화담시 한 편을 보내드리는 것으로써 채 용해되지 않은 앙금을 묵묵히 삭여야 했습니다.

그후로 벌써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이름이 한 번 바뀌고, 비록 걸치 레이긴 했지만 적지않은 양심수들이 사면·복권되어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온 현실. 그러나 여전히 그 당시부터 갖게 된 의

구심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선에서 다시 교단에 서게 될 그날이 오기 전엔 그것이 말끔히 씻겨질 가능성은 없나 봅니다. 그리고 보면,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결코, 얼토당토않은 것만은 아니겠지요.

썩을대로 썩은 교육, 이제 정말 혁명이 필요한가 봅니다

선생님, 얼마전엔 교생실습을 마친 친구들이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저마다 한아름씩 이야기 보따리를 가지고들 있는데 친구들의 화제거리는 좀처럼 바다가 드러

이름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아쉬움만의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장차 교단에 서게 될 친구들이 어떻게 당신을 뒤로 한채, 멋있게 학생들을 바라볼 수 있을지라는 우려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동안 너무 잊고 지냈던 것입니다. 선생님, 당연스럽게 참교육, 참세상을 외치며 가슴씩차 했지만 자꾸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떠오르곤 합니다. 5월이면 오래 전교조 문제를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오늘처럼 이렇게 편지를 쓰기도 하지만 달이 바뀌기가 무섭게 당신을 잊기 쉬운 저희들의 불찰은, 행하니 가슴 한구석의 한중으로 불어올 다릅니다. 정말 반복했습니다.

선생님, 얼마전엔 신문주상에는 우리나라 교육계의 극심한 부패상을 보여주는 부정부패가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꼴 보지 않아도 되니 그나마 다행이군요. 그러나, 도무지 어디까지 썩었는지 그 끝을 알수 없는 교육계의 현실속에서, 그래도 건강한 교육을 설계하여 원상복구를 기다리는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결코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진실로 교육의 혁명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록 심하게 썩었다 한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생명체이기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치료를 아끼지 않는다면 조금씩 소생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교육이라고 믿습니다.

천상에서 아직도 아이들 걱정하시는지요

을 믿습니다. 선생님, 천상에서 아직도 아이들 걱정하고 계시는지 모르겠군요. 그러나 걱정마세요. 아마 내일모레쯤엔, 그 속아오는 불행가무를 다시 들이킬 수 있을 테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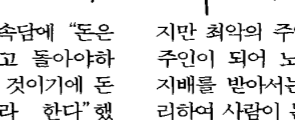
김태형 (법과대 법학과)

돈의 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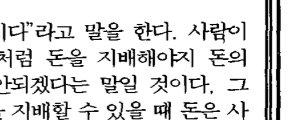
죽담에 "돈은 들고 돌아야 하는 것이기에 돈이라 한다" 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돈을 가리켜 생물처럼 솟아 쉬지 않고 흐르는 보배라 했던 것 같다. 그렇다. 돈은 쉬지 않고 들고 돌면서 상품생산과 유통을 촉진하여 경제발전을 돕는 이기(利)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섣달년전 실학자 이수광은 나라를 부강케 하는 지름길이 돈을 만들어 쓰는데 있다고 하였다.

원 우 한



지만 최악의 주인이다"라고 말을 한다. 사람이 주인이 되어 노비처럼 돈을 지배하지 돈의 지배를 받는다는 안되겠다는 말일 것이다. 그러하여 사람이 돈을 지배할 수 있을 때 돈은 사람과 같이 달콤한 행복의 원천이 되지만, 돈이 사람을 지배할 때 돈은 죽음과 같은 비극의 씨앗이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백오십년전의 실학자 이규경은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여, 사람이 돈을 지배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폐단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 때문에 혈육간에 서로 원수가 되고 남편과 아내가 절개를 잃게 되고 장사꾼은 다두고 살인하게 되며, 양반은 돈으로 명예를 얻는다." 요즘 돈의 유행에 사로잡혀(?)역사의 심판을 받게 된 내나라는 사람들의 초라해진 모습을 바라보며 역사의 교훈을 외면한 인생의 허무, 아니 비극같은 것을 느끼게 된다.

동양적 시각으로 접근 종교현상 총망라 시도



종교학과 '종교심리학'은 서구에서 먼저 연구되고 발전되어 왔다. 이 분야를 접근하는 방법론도 서구적 사고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동양종교의 관점에서 보면 거슬리는 점이 없지 않다. 이 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바람직한 종교학의 확립을 위해 포용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시각에서 종교학과 종교심리학의 핵심개념들에 접근하고 있다.

교생실습 마친 친구들 에게도 선생님 소식은 없더군요

교사 준비를 한담시고 집근처의 사설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던 때였습니다. 이따금 '이런 공부들 꼭 해야만 하나' 따위의 잡념에 사로잡혀온 할 때, 휴게실에 마련된 신문 게시판 속의 세상 이야기를 들여다 보며 그 맘때면 누구나 그렇듯이 막연한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신문의 한 면

◆인터뷰 신임 동국문학인회장을 만나

"문학 활동 활성화 시급"

6월 시화전·'동국문학' 지 복간 계획 각계 동문문인, 3백명 정도로 파악

한국문학에서 큰 맥을 형성해 온 동국문학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동국문학인회는 지난달 14일 홍기삼(국문 66출·국문학)교수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임기 한달째를 맞이하는 홍기삼 회장을 만나 동국문학인회와 동국문학인회의 나아갈 바에 대해 들어보았다.

초창기의 동국문학을 이끌었던 한용운, 신석정, 조지훈 같은 분들의 시는 한국 고유의 정서와 독특한 민족정서를 담고 있다.



홍기삼 회장 (문과대 국문과 교수)

“과거의 영예보다 앞으로 동국문학에 대한 관심이 중요”

있고 그에반해 그 뒤를 잇는 이범선, 박신진, 조정래, 황석영 등의 선배 소설가 들은 다양한 성격의 소설들을 썼다. 근래에 와서는 얼마전 7명의 동문문인들이 평론분야에 발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홍기삼 회장은 현재는 연구년 교수로 전공인 현대문학에서 연구분야를 넓혀 고전문학을 연구하고 있으며 문학사건 준비등 그동안 밀렸던 글을 쓰며 보낸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동국문학의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학생들의 문학 활동이 쇠퇴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동국문학이 곧 한국문학이라고 할 정도로 동국의 문학은 그간 다수의 영향있는 선배 문인들을 많이 배출했지만 그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내일의 동국문학을 이끌어갈 학생들의 문학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다. 학생들이 대학내 학부활동이나 학평회등의 문학활동을 통해 좀더 문학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이를 위하여 선배들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東)

문학단신

◇문학이카데미 '시의 축제'... 문학이카데미의 제54회 '시의 축제'가 17일 오후 7시 동승동 샐터 파랑새극장에서 열렸다.

◇90년대 동인의 시화집 (나귀를 보면 모과가 생각난다)출간을 기념하는 시낭송회를 겸한 이번 행사에는 국악인 박준호씨가 대금 반주에 맞추어 유창한, 박제천의 시를 시창으로 들려준다 (746-1074)

◇임석대동 영화굿... 경주캠페스 영화모임 '소낙비'에서 축제를 맞아 '애니메이션 영화제'를 개최한다. 12일 오후1시-미녀와 야수, 오후3시-들리, 13일 오후1시-토토로, 오후3시-누가 로저라발을 모함했는가. (녹아인 야외상영), 소강당 1.

◇신화 1900... 경주캠페스 동국연극회 제8회 워크샵 공연. 18일부터 20일까지 오후 2시, 5시, 원효관 소강당 1.

◇90년대 문학정책 토론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에서 90년대 지배정체비판을 주제로 제2차 정책토론회를 11일 오후 1시30분 민예총 5층 강당에서 개최한다. (543-5872)

春

꽃가루, 향사... 렌즈불청객을 이겨내는 봄철 콘택트렌즈 관리법

1. 손을 씻고 렌즈를 빼다음
2. SPC액으로 거품을 충분히 내어 문질러 세척하고 (이때 단백질도 제거됨)
3. 거품이 없어질때까지 깨끗이 행군 후
4. 소독은 매일매일 (열소독과 화학소독은 병행하지 말것)
5. 보존후, 착용전에 또한번 행군

SPC 액

렌즈관리 용품도 중외제약입니다

1일 1회 SPC액 세너방울이면, 세척과 단백질제거를 동시에-

봄은 참 좋은 계절 하지만 렌즈착용자에게 신경이 쓰이는 계절이죠. 향사, 꽃가루... 대기속에 이물질이 많은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렌즈관리용품 전문공급업체 중외제약의 SPC액으로 봄철 렌즈관리를 보다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하세요. 3가지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SPC액- 깨끗이 행귀하는 수용성이라 눈에 안전하고 각종 오염물질로부터 렌즈를 보호해줍니다.

렌즈세척과 단백질제거를 동시에-

SPC 액

●수입원제품 ●권장소비자가격: ₩ 5,500 (2개월분)

중외제약

렌즈관리 용품도 중외제약입니다

1일 1회 SPC액 세너방울이면, 세척과 단백질제거를 동시에-

봄은 참 좋은 계절 하지만 렌즈착용자에게 신경이 쓰이는 계절이죠. 향사, 꽃가루... 대기속에 이물질이 많은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렌즈관리용품 전문공급업체 중외제약의 SPC액으로 봄철 렌즈관리를 보다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하세요. 3가지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SPC액- 깨끗이 행귀하는 수용성이라 눈에 안전하고 각종 오염물질로부터 렌즈를 보호해줍니다.

렌즈세척과 단백질제거를 동시에-

SPC 액

●수입원제품 ●권장소비자가격: ₩ 5,500 (2개월분)

회원모집

SPC를 비롯한 중외 렌즈관리용품을 구입한 후 리본을 보내주세요. 저등으로 회원가입이 되며 신제품 샘플 무료제공, 콘택트렌즈 관리요령 책자 등을 보내드립니다.

●문의처: 151-600 남서울유망로
 ●사서함: 96호(구) 중외제약 P.M실

제자리 못찾는 졸준위

뒤늦게 꾸러져 일정 차질 빚어 조직강화 통한 위상정립 시급

제5대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가 지난 10일 총학생회실에서 있었던 단과대 졸업준위 주체 모임에서 장대용(야간경제4)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졸준위 구성의 의의에 대해 장대용위원장은 "조금 늦긴 했지만 4학년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된 것"이라고 밝히고 "졸업준위 주체는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되어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4학년대표들은 지난 10일 총학생회실에서 모여서 졸준위를 구성했다.

또한 졸준위는 각 과 4학년대표와 각 단과대 졸업준위 주체에 보낸 '졸준위 구성을 위한 제안서'라는 공문을 통해 각 단과대 졸업준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힘있게 참여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졸준위는 졸업앨범제작과 관련된 오는 13일 총학생회실에서 업체선정에 있어서의 의견수렴과 문제점 지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졸업앨범 제작업체 선정을 위해 각 과 4학년대표들은 지난 6일과 10일 2차례에 걸쳐 동국, 선명, 새한 스튜디오 등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품평회를 갖는 바 있다.

지난 10일 있었던 2차 모임에 모인 각 단과대 졸업준위

위원장과 함께 집행부를 구성했다.

제5대 졸업준위 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기획부장=김도수(행정4) △총무부장=김종민(통계4) △앨범제작부장=유태선(미술4) △홍보부장=김미숙(지교4) △취업1부장=황명(경제4) △취업2부장=오성중(전공4) (이상 6명)

제5대 졸업준위가 예년보다 늦게 꾸러졌다.

졸준위는 졸업사이에 관한 모

든 것을 담당하는 총학생회 특별기구로 졸업앨범 제작, 취업대책 등 졸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학생자치기구이다.

이중 가장 중요하고 관심을 끄는 사업이 바로 졸업앨범 제작이라 할 수 있다.

제5대 졸업준위 집행부 구성이 끝난 이튿날부터 본격적인 앨범제작에 착수한다.

이런 앨범제작은 업체선정방식이 예년의 공개입찰방식과는 다르게 품평회와 사업계획서를 통해 업체를 선정할 후 논의를 통해 계약하게 된다.

지난 6일과 10일 있었던 품평

회에는 92, 93년 본교 앨범제작을 맡았던 새한 스튜디오, 91년 본교 앨범 제작업체인 선명스튜디오, 올해 교내에 스튜디오를 개설하고 앨범업계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동국 스튜디오 등 3개 업체가 참가했다.

이 과정에서 새한 스튜디오의 경우 별다른 계획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제작하겠다고 밝히고 작년 수준이라면 가격은 4인1천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비해 선명과 동국 스튜디오는 이보다 1천원이 안 4인1천을 제시했다.

현재 졸준위는 동국 스튜디오를 1차 대상 업체로 선정하고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대용 위원장은 "자체 선정기준에 가장 적합한 회계를 제출했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정, 새로운 형식의 앨범을 기대할 수 있어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국 스튜디오의 사업계획을 보면 기존의 형식에서 탈피해 학사모사지를 빼고 과 특성과 학내생활을 담은 이미지 사진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외에도 본인이 원한다면 대형 학사모사지를 제공(추가요금=2천3백원)하겠다고 제의했다.

한편 졸준위측은 오는 13일 공청회를 통해 별 이견이 없으면 동국 스튜디오와 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촬영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졸준위 사업이 앨범제작이 전부는 아니지만 예년보다 한달가량 늦은 사진촬영, 업체선정방식 변경에 따른 마찰 등과 함께 아직 사무실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앞으로 졸준위사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듯하다.

(취재부)

지관스님 출판 기념회 불교금석문 최초 번역

이재관(선학)교수의 저서인 '역주 역대승비문(신라편)과 가산학보(제2집)에 대한 출판 기념회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종로구 동숭동 소재)에서 불교계 주요인사들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 열렸다.

고대사 연구를 1차 사료가 되는 불교금석문을 주석정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로서 이재관 교수는 "용상반기 중으로 고려시대 고승 15명의 비문을 주석한 고려편 1권을 발간하고 연내에 고려편 2권을 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호기 야구대회 출전 중앙대와 첫 경기

야구부는 오는 14일부터 동대문 야구장에서 열리는 백호기 야구대회에 출전해 중앙대와 첫 경기를 가린다.

2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백호기 야구대회는 실업팀과 대학팀 모두 참가하는 권위있는 대회로 지난84년 본교가 우승한 바 있다.

직원 체육대회 오는 14일 체육관

체육부(부장=김병수)는 교내 직원대상으로 오는 14일 오후 5시에 체육관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점거농성중인 총학생회장 최순호(국교4)군을 만나 "순수한 마음으로 학내주체 함께 해야"

학내내의 교육비리척결과 동국중층의 기초를 갖고 9일째 접어들어 총학생, 재단이사장실, 법인사무처실등의 점거농성은 총학생회와 학교당국간의 의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학생회가 보였던 예년의 단거기 투쟁과는 달리 총학생회 현재 제기하고 있는 학교 인사행정의 문제나 비리인사의 척결등은 몇차례의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어서 학내에 큰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출범초기 동국자주중층운동을 선포하며 지금의 점거농성에 이르는 제25대 총학생회 회장 최순호(국교4)군을 만나 이후 투쟁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점거농성까지 하게된 배경은

"동국금고지서협약발부를 하면서 총학생회는 동국중층이라는 건설적 과제를 놓고 학교측과 협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랐다. 그러나 동국중층안타당 무산된 학교발전을 위한 논의는 뒷전인 채 파행적 인사교무 행정등의 부조리함을 저지르는 학교당국에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 이후 지금까지의 투쟁은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해 진행했다.

현재 총학생회가 제기하고 있는 투쟁목표는 무엇인가.

"첫째로 그동안 학교발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인 인맥과별 구조의 타파다. 이는 것은 인사행정 비리가 저질러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 파악되고 있는 행정대학원의 강성윤교수나 김한주교수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두번째로 구제적 학교발전을 위한 혁신의 과제인 재단 고위관제자와 총장에 대한 부정 부패 추구를 해나갈 것이다. 앞서 말한 두가지 맥락의 투쟁방향은 교발전의 선결과제인 부정 부패 구조의 척결투쟁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구조적 부정부패척결에 대한 투쟁 방향은

"지금까지 학교발전을 위한 제3캠퍼스건설등의 공약이행에 충실하지 않고 비민주적 인사행정을 저지르고 있는 현 민병천 총장에 대한 퇴진투쟁을 전개하려 한다. 또한 인맥과별에 의해 유지되는 인사 교무행정비리를 낫게 하여 알려내면서 척결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언제부터 점거농성에 비탄적 입회가 있는가.

"대화와 타협이 더 필요했던 이런 사태로 발전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발전에 수동적 자세를 고집하는 학교당국과 보며 축적된 부정부패를 개선하지 않고는 동국중층은 있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언젠가 또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면 지금 일선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이러한 점거농성등의 투쟁은 불가피하다.

앞으로 학내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총학생회의 어떤 정책을 내는나 하더라도 구성원들이 이를 견디지 못한다면 성과를 내올 수는 없다.

순수한 동국중층의 신심으로 학생, 교수, 직원 모두 투쟁에 함께 하길 바란다.

(박수로 기자)

대학신문 탄압 거세져 한성대·서경대 등 제작중지 상태

최근 대학신문에 대한 탄압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발행중지상태가 벌어진 대학신문은 서울지역만해도 외국대, 이화여대, 한성대, 서경대-학보등이 학교당국에 의해 제작중지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대학신문들은 대개 학원비리 고발기사가 광고로 인해 학교측으로부터 기사삭제등의 언론탄압을 받아 오다 제작중지 상태까지 이르게 됐다.

한성대신문사의 경우 교수임용에 대한 학교측의 교육부 허위보고가 있는 뒤 신문물 통해 이같은 비리사실을 기사화했으나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측에 의해 제작중지상태가 내려졌다.

이후 일간지등에서 이같은 교

육비리보도가 나가는 등 사실상 확인됐음에도 아직 한성대신문에 대한 제작 중지결정이 철회되지 않고 있다.

서경대도 이와 비슷한 경우로 교육부의 승인으로 3년간 10개과가 중원되고 종합대학으로 승격되는 과정에서 18명의 교수명단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현재 학생들로부터 교육비리에 대한 책임을 교육부와 재단에서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서경대 신문기자들은 이같은 사실에 대한 보도와 교명 변경과 관련한 반대장고를 게재하려 하였으나 학교측의 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작을 마친 화보를 발행중지시켰다.

이같은 학원내 문제폭로와 관련한 대학신문 발행중지사태는 외대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는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학생회의 재단이사 퇴진투쟁은 동 관련 광고를 게재하려다 이를 실을 수 없다는 학교측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 학보발행이 중지된 상태다.

한편 이같은 일련의 대학신문 발행중지 사태에 대해 제12기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서울지구본부(위원장=조철홍 한대신문사 편집장)에서는 호의발행을 통해 학교당국의 대학신문 홍보지와 음모를 규탄하는 내용을 선전하는 한편 오는 17일에는 한성대 민주투쟁에서 규탄집회를 상징하며 대학신문관련자를 권 경위를 위한 전국규모의 문화공연을 5월중 개최하는 것을 준비중이다.

경주 아폴로 산업 농성에 경찰투입 총학 "선전전 통해 부당성 알려버려"

단체협약만 개정을 위해 농성 중이던 경주 아폴로 산업에 지난 6일 새벽3시경 경찰투입 3개 중대 3백여명이 투입 조차된 수습조치로 농성이 종료됐다.

또 이날 관리직 사원들은 정문을 봉쇄하고 지원투쟁에 참가한 공단 노동자와 해고 노동자들을 구타해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공권력 투입시 현장에 있던 노조측 관계자는 "노조의 고발은 무시하고 회사측 고발만 수렴한데 공권력을 투입한것은 합법적 행위를 탄압한 행위"라며 5-6공식 노동쟁쟁이 잔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회사측은 지난 10일 휴업을 철폐하고 정상조업 공고를 노조측에 보내 왔으나 구속자

석방등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가했다.

이에 본교 총학생회 연대 사업부장 이도원(경영3)군은 '아폴로 산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앞으로 노동운동 방향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된다며 선전전을 통해 이번 사태의 부당성을 알려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학과소식

정치의학과

외무고시수석합격자 황남기(인철90)등문을 초청해 오는 13일 동국관(M302)에서 외무고시 설명회 겸 외무고시준비생 모임 결성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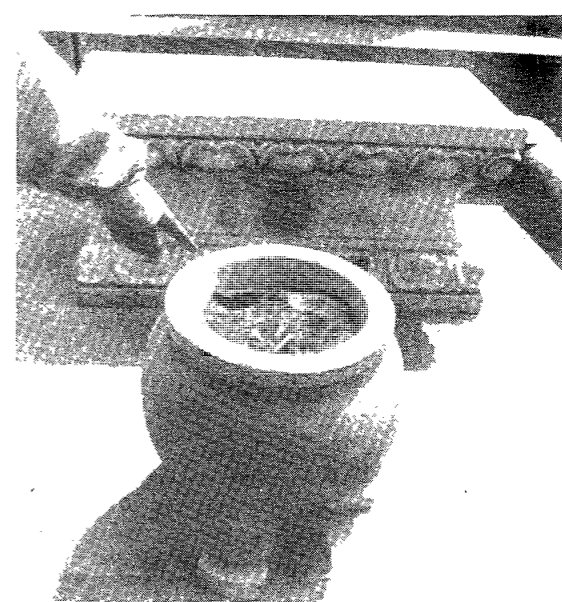
또한 이날 행사 가운데 외무고시 시험 실지에 관한 주제로 타과 학생과 함께 토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가정교육과

친목모임을 위한 고려대 가정교육과와의 체육대회가 오는 14일 만해광장에서 열린다.

화학공학과

교수-학생 간담회가 오는 13일 5시 공대세미나실(D102)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수-학생간의 관계모색, 교과과정 개편, 교수 강의의 분위기 형태와 학습분위기 및 태도, 대학원 발전전략, 신규교수 채용에 대하여 토론을 갖는다.



부처님의 재물이

◆불행함을 찾아나온 학생들이 지나가 고난 불상일 형태로 담배꽂이가 쏘여졌다. 부처님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반미 통일문화제 열려 오는 13일 서울대에서

조성만 열사 추모 5주기 반미 통일 문화제가 '햇기내 내조국의 아픔을 딛고'라는 제목으로 오는 13일 서울대 아크로폴리스에서 제3기 서울지역 남부지구 총학생회연합(의정-조두현, 서울대 총학생회장)주최로 열린다.

이런 행사의 제기배경에 대해 서 남총련의 한 관계자는 "올해 5월의 시기는 현재의 반미 자주투쟁을 중심으로 고려인 전선승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제반 사업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반파소 민주투쟁을 시기적절하게 조직 전개해야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행사의 의

의에 대해 "민족의 목사의 강연이나 각 학교 문제해결의 공언 등은 분단조국을 살아가는 청년의 삶의 자세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이후 통일운동을 비롯한 투쟁의 활로를 개척하는 투쟁이 될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행사내용으로는 1부 순서로 문학인 목사 초청강연, 2부 문화공연, 3부순서로 민족분단의 아픔과 조국통일의 염원을 담은 복일 합창악회 '새'의 상영 등이 이어진다.

한편 본교에서는 탈과 동국문학회가 2부 문화공연에 참가한다.

(이석중 기자)

민요세요

○...본관 점거농성중인 지난6일 밤 11시경 몇몇 학부모들이 몰려와 농성장앞에서 농성(?)을 벌였다고.

이날 농성장을 찾아온 이들은 총학생회 간부나 몇몇 단과대학생의 학생회장들의 학부모들로 '백의 자식'이 학교에서 농성을 주도하고 있다. 내일 아침 전부 구속시킴엔 일론 와서 데려가라는 정제불명의 전화를 받고 황급히 달려온 것.

이에 농성하던 한 학생회간부말 "어머니, 스승까지 못믿는 시대라서 저희가 이려고 있지만 자식은 민요세요"

엔무세는 뭘 수 없어

○...문신사대에 때어난 대

학원신문입이 가해지고 있어 신문이 생명이 기자들의 마음은 아프게 하는데.

대부분의 발행중지를 당한 대학신문들은 학원내의 주요사안과 비리를 다른 기사사제를 요구하는 학교측에 반발하다 이같은 최악의 사태까지 맞게 된 것.

후배에게 펜과 원고지 대신

야밤 괴전화로 달려오신 어머니 자식만은 민요세요

매직과 대자보만 들려주어 가슴이 아프다는 한성대 강동준 편집장은 "우리 청년기자는 영 무세가 될 수 없다. 우리에겐 일일일무를 준 독자가 있기 때 문이다"며 결의를 밝히기도.

이유로 한달도 채 되지 않은 새프로그램을 재편경고 승산(?)없는 고정교양 프로그램은 도중하차, 혹은 심야로 개조정하는 등 시청자는 소외된 시청률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대

다수의 시청자보다 소수의 광고주만이 주고받을 수 밖에 없는 시청방식에 격분한 한 학생 '학보상자에게서 무시당하니 살 맛 안난다'고 푸념.

양외의 탈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3-6대사면이 전교로 복직검토니 학제 안가 폐쇄등 그러듯 학제 자립 개혁을 부르짖길래 폭력없는 좋은세상 오는가 했더니, 문인정부가 막을 올린 지 석달도 채안돼 아폴로 산업에 공권력이 투입돼 농성중인 노동자 40여명이 부상을 당해 치료중이라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본회전우대자 '양외' 탈을 썼으리라 짐작은 했지만 땀도 본 모습을 들추니 황당무계로이

수계 대법회

귀의 삼보 하옵고 자비로우신 부처님의 은혜로 하시는 업무마다 여의로우시길 기원 합니다.

본 정각원에서는 전통국인 춘계 수계대법회를 거행합니다.

계(戒)란 삶의 지침이요, 올바른 생활을 위한 근본바탕입니다. 동국의 모든 가족들께서는 이번 수계법회에 동참하시어 불연(佛緣)을 맺으시고 바른 삶의 지표를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전 계 사 : 오복원 대총사
일 시 : 2537(1993)년 5월 17일(月) 오후2시
장 소 : 정각원 대법당

수계접수
기 간 : 1993년 5월6일~5월13일
방 법 : 전화 또는 소정양식에 따라 접수
장 소 : 정각원 사무실
문 의 : 전화 260-3015~6 직통)268-2314

정 각 원 장

공 고

'93학년도 본 대학원 연구논집 제23집 발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를 모집하오니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1. 논문집 명칭 : 동국대학교 대학원 연구논집 제23집
2. 원고모집 대상 : 가. 석, 박사과정 재학생, 수료생 나. 본교 대학원 출신의 본교교사

다. 본교의 조교

3. 원고매수 : 워드작성 A4용지 20매 내외 분량(도표포함)
4. 원고제출부수 : 가. 인쇄용 원부 1부 나. 심사용부본 3부
5. 원고제출마감일 : '93. 8. 31(화)까지
6. 발 행 일 : '94. 1. 31
7. 게재여부통보 : '93. 10월중 개별통보
8. 제 출 처 : 대학원 교학부

1993. 5.

대 학 원 장

공 고

본 연구소에서는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인성, 적성, 지능검사)와 상담(취업, 학업, 성격, 해외유학)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접 수 : 월-금 (오전 10:00~오후 5:00)
2. 심리검사 : 수요일 (오전 11:00~오후 4:00)
3. 상 담 : 목, 금요일 (오후 1:00~오후 5:00)

*접수 및 문의처 : 학생생활연구소(교수회관 3-1호 ☎3506)

학 생 생 활 연 구 소 장

하나 동국인의 '피를 나눈 사랑'

백혈병 진단받은 강자현군 돕기 운동 예비군 훈련때 학생 9백여명 헌혈하기도

“강자현 군, B형, 급성백혈병으로 혈액급수... 도와주세요...”
 몇주일전 학내 곳곳에 붙었던 대자보의 문구이다.
 강자현군은 본교 일문과 4학년 휴학중인 4월초 잇몸의 출혈로 첫 증세가 보이기 시작하여 급기야는 급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진단을 받은 이후 강군은 여의도성모병원에 입원해 있으나 정해진 잠깐 동안을 제외하고는 면회가 불가능했다.

직접 얘기를 나누고 병세에 대해 알려준 강군의 어머니는 “처음 병원에 왔을때 눈앞이 캄캄했죠. 자원이가 백혈병이라니 말이예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자원이가 골수이식을 받아야하는데 혈소판수치가 필요하네요.

고정적으로 헌혈을 해줄수 있는 사람이 20명이 있어야 하는데 헌혈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야죠.” 방법이 없어 울기만하던 강군의 어머니는 강군의 동지들을 찾아가보라는 친구의 권유에 학교에 자보를 붙였다고.
 자보를 보고 헌혈을 한 사람은 16명. 그중에서 강군에게 적합한 조건을 지닌 사람은 4명뿐이었다. 이때 헌혈을 했던 이재현(일문4)과 양철국(일문4)군은 “처음 대자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랜 기간 휴학중이기 때문에 그친구의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하며 안타까움을 표한다.
 이 양군은 시일이 지나도 헌혈자가 모집되지 않자, 지난 4월 군부대에서 치뤄졌던 예비군 훈련때 강군의 병세를 설명하고 헌혈을 부탁하는등 직접

헌혈운동에 나섰다. 훈련생중 9백여명이 되는 동안이 헌혈을 했고, 2백51명의 헌혈카드가 모아졌다. 이 모습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장한 일을 했다”며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높였고 헌혈을 한 사람들도 제각기 뿌듯한 웃음을 띄웠다.
 이날 헌혈에 참여한 조민호(국문1)군은 “헌혈을 한다는게 좀 두렵긴했지만 한사람을 살릴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은 좋았습니다”라고 말한다.
 강군의 병은 혈종의 백혈구가 이상 증가하여 적혈구를 파괴해 버리는 난치병이다. 치료법은 골수이식. 강군을 돌보고 있는 골수이식실의 한 간호원은 “골수는 가족중에서 체질이 비슷한 사람의 것을 이식할수 있어요. 그런데 혈소판은 거부반응이 큰 가족의 것을 받을수 없고. 장기간 보

존이 어렵기때문에 주의해야 해요”라고 설명한다. 또 골수이식시 강군에게 필요한 혈소판수혈은 지혈이 안되거나 치명적인 노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혈소판만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명을 해주던 간호원 곁을 지나던 새하얀 얼굴에 마스크를 쓴 또다른 백혈병환자. 일찌기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삶에 대한 충실성을 역설한 스피노자의 잠 뜻을 헤아릴수 있게했다.
 강군은 지금 완전과내(항암제만 투여받고 있어 폐유가 미지수인 것) 상태이지만 “자원이가 학교를 휴학한지도 오래되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줘서 정말 고맙다”며 미소를 짓는 어머니의 모습에 희망을 가져본다.
 학교인 강군의 어머니는 간호원에 도움을 청할때 말이 통하지 않아 힘이 들때도 있더라.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미소를 지어 보인다.
 우리말에 ‘피를 나눈 사이’라는 것이 있다. 원래 의미는 부모, 자식의 사이나 형제간의 혈육을 뜻하는 말이지만, 우리 동학인이 만들어낸 더 큰 의미의 ‘피를 나눈 사랑’을 자원군돕기운동을 통해 덧붙여 주었다.

법학과 철학이 만나던 강의시간

법학동론시간의 고전강의 가슴에 남아 1천여편의 논문을 낸 학문의 열정 감탄스러워


꿈꿨던 대학 신입생시절에 우리 법학과 학생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일은, 일주일에 한차례 고전을 읽어 와서 그 감상을 이야기하여야 했던 장경학(張敬學)선생님의 법학동론 시간이었을 것이다.
 카프카, 마키아벨리, 카뮈, 사르트르, 들뢰즈, 푸코, 몽테스키외, 에릭슨 등의 수많은 고전과 작가가 학생들에게 의해 매주 첫 시간에 거명되고, 그에 따라 일일이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다. 그러다 보니, 항상 무슨 책을 읽을까 고민하였고, 시중의 베스트셀러를 보고 와서 책 선택의 안목에 대해 불호령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나 하고 제목과 서문 정도만 훑고 눈동냥이나 하고 와서 마치 읽은 척하다가 역시나 망신당 당하기도 하였으며, 학기말에는 지금까지 자기 읽었다고 한 책을 찾아 독후감을 쓰기 위해 동분서주하였던 기억이 새롭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학생들은 겨우 고전의 제목만을 보고하고 간단한 질문에 답하였을 뿐이고, 각 서적과 저자, 그 사상적,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법학과 관련성에 대한 선생님의 언급이 일사천리로 전개되었다. 이는 정원이 겨우 25명이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하였지만, 법사에 파묻혀 자칫 소홀하기 쉬운 교양의 확대를 위하여 학생들이 대하여 배후수 배려와 애정의 한 표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읽고 듣고 하였던 수련의 고전이 우리에게 사과의 틀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었으며, 은연중에 학문적 소양과 법적 사고의 함양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한 강의중에 간간히 거명되는 해켄, 칸트 등의 철학자, 쾨셀, 라트부르흐, 사비니 등의 법학자들이 이르면, 우리는 눈을 놓고 그 해박하심에 다시한번 매료당하곤

삶의 두인물 ③

장경학 교수편

.....

〈약력〉 1962년 3월~1981년 2월까지 본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 대학원장, 행정대학원장 법대학장



하였다. 심지어 노름(norm)이라든가, 선생님께서 잘쓰시는 썬프(simple)등 너무나 정직한 외국어 발음조차도 우리들의 학문에 대한 흥미 유발시기에 충분한 것이었다(지금도 우리끼리 만나면, 썬프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기도 한다).
 선생님께서 그동안 시론(時論) 등 각종 잡글을 제외하고도, 저서가 40여권, 번역서가 10여권, 학술논문 40여권, 각종 장기간행렬 논문이 1천1백여편을 상회하는 연구업적을 쌓아 오셨으며, 지금도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집필을 계속하시는 것을 볼 때, 그것은 타고나신 건강도 건강이러니와 한결 흐트러짐이 없는 생활태도와 그 학문에 대한 열정의 결과였으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과연 문학정신다운 다양한 각도의 신선한 시각은, 단순한 법해석학을 넘어서 결국 선생님께서 문학과 법학이 만나며, 철학과 법학이 만나며, 법학과 사회학이 만나서 어울리게 되었으니, 그것이 법률문화정신이요, 예를 리하나 켈렌 등의 번역서 등이 있다. 그리고 언제나 새로운 화제와 내가 보여온 20년동안에 한번도 같은 화제를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지 않는 것을 보면, 마치 커다란 용광로와 같은 선생님의 능력이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전, 장시간 대화를 하다가 또 한번 크게 놀랐던 적이 있는데, 회수를 넘기신 연세에도 불구하고 괴테나 켈렌 등의 개인 연표를 수첩사이에 끼워 다니시면서, 종종 그들과 선생님께서 자신을 연령별로 비교하시면서 자기 연마를 하시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말씀하시며, 젊은 사람으로서 심히 부끄러웠던 적도 있다.
 그래서 지금도 자신이 나태하다고 여겨져서 선생님을 찾아 뵈오면, 뵈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극이 되고 활력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계도가 마련되어서 좀더 편안하시고 넉넉한 가운데에서, 건강이 허락하시는 한 계속해서 그 탁월하신 식견과 화려하신 경력에서 우리 나오는 경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어, 그로써 후학들이 나아가 갈 방향을 제시해주시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이준성
(법정대 법학과 교수)

사랑 넘치는 두가지 이야기

“불우한 어린들에게 희망을

정정현군의 인형모이기운동 학내 확산 재할원이나 병원에 기증 사업 벌일 터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사람들이 무관심하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수줍게 얘기를 꺼내는 정정현(아간 강좌-경영2)군의 가슴에는 “인형을 모읍시다”라는 표창이 달려있다.
 정군이 인형모이기 운동을 하게된 동기는 지난 겨울 인친의 한 외국어 학원을 다니면서 강사인 조규환씨를 만나게 되면서 부터이다.
 조씨는 학생들이 전철안에서 모금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할 성금이 중요하듯이 건너지는 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릴때 누구나 한뼉쯤은 가지고 놀았던 인형을 가난하고 병상에 있는 어린이에게 나눠주면 어떠냐”는 조씨의 제안에 많은 공감을 한 정군이 적극 발 벗고 나섰다.
 3월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이 일을 시작한 정군은 ‘인형모이기’ 운동의 참여를 호소하는 대자보를 동아 곳곳에 붙여서 알렸으며 심지어 시내 대형서점, 다문화학교 친구들에게도 그학교에 홍보를 부탁했다.
 “노랑을 가진 사람들에게 작으나마 힘이 되고자...”로 시작하여 주변의 오래된 인형을 깨끗이 손질해서 사랑을 전달하겠다는 내용의 이 조그만 자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

했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낼 수 있었다.
 한편으로 정군은 직접 안내문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참여를 부탁하기도 한다. 덕분에 소극적이던 성격이 많이 활발해졌다.
 “오늘도 누군가 이름을 말하지 않은 채 인형을 가져다 놓았더군요.” 이런 보이지 않는 성의까지 합쳐 그동안 모인 인형은 무려 1백20여개 정도인데 현재 조규환씨가 강사실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어 인형을 보관할 장소도 문제지만 전달할 어린이들을 찾는 것이 더 시급하다.
 얼마전 불우어린이 10여명이 입원해 있는 은혜병원을 방문하려했으나 병원사정상 갑자기 노인병동으로 바뀌는 통에 헛탕치고 다시 방문할 곳을 물색중이다.
 인형을 가지고 놀거나 개를 쓰다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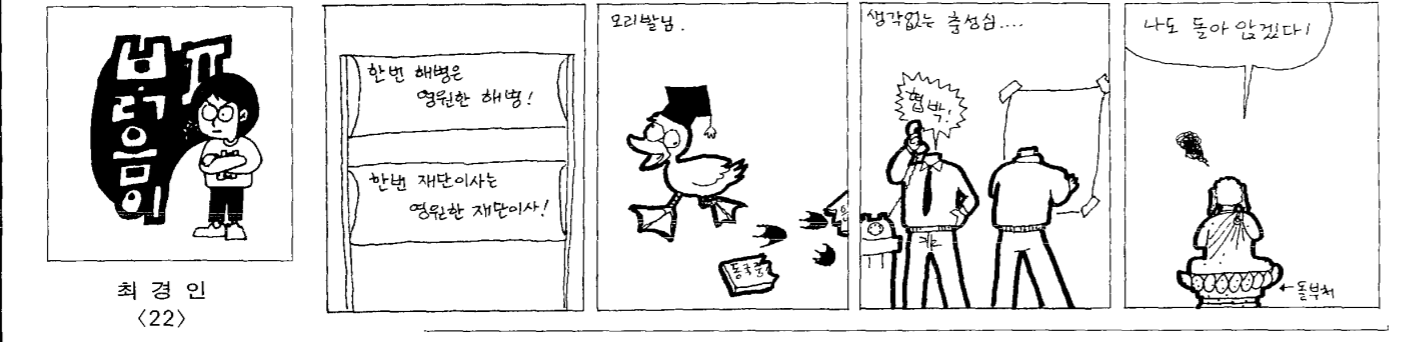
어 주는 등의 행위가 성장호르몬을 촉진시킨다는 기사를 한 과학잡지에 읽은 적이 있다는 정군은 혼자있는 아이에게 인형은 친구이상이며 자기를 느끼게 해주는 존재라고 한다.
 정군의 ‘인형모이기’ 운동이 확산되면서 여기저기서 인터뷰요청이 쇄도하는데 처음엔 홍보 목적으로 응했으나 점차 주위의 시선이 부담스럽다고 솔직한 심정을 얘기한다.
 얼마전 인형을 놓고난 김수진(국교1)양은 도서관 자판기에 붙은 대자보를 보고 처음 이 운동을 알게 되었다며 “내가 옛날에 가지고 놀던 인형을 갖다드렸는데 작은 정성을 모아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정양은 앞으로 정군과 함께 이 운동을 벌여나가고 싶으며 친구들이 참여할 마음은 있으나 작극성이 부족하다고 아쉬워한다.

정군은 앞으로의 계획을 조심스레 얘기한다. “재할원에는 인형보다는 학습도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인형뿐만 아니라 필요한 물품들도 모으고 싶습니다.” 또한 엑스포행사때 여러나라에 ‘인형모이기’운동을 알려 세계적으로 확산시켜겠다는 야무진 꿈도 더불어 갖고있다.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환원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는 정군은 힘이 닿는 한 이 운동을 계속해 나갈 생각이다.
 “이런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주위사람들에게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싶으면 좋겠습니 다”라고 말하는 정군에게서 밝은, 사회의 한면을 엿볼 수 있었다.

대안 ▲최근 김영삼 정권의 개혁에 국민들의 믿음이 흔들릴만 한 몇가지 심각한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국민정당 창당성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전두환 군사정권을 없애달라 12.12사태가 합법적이었느냐고 공언했다 ▲개혁의 선두가 될 국무위원들의 수장인 황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과거 군사정권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조망과 심판을 갖지 못한 정권의 본질을 감지하게 만들


었다. 과거 군사정권에 대한 비판과 결별속에 이루어져야 할 변화가 그들의 근본이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출범이후 전교조 해직교사의 복직을 이야기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대우를 보장하겠다고 했던 현정권의 지난 6월 경주 아몰로산업에의 공권력 투입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
은폐된 본질
 는 허무감을 던져준다. 정의신고를 하고 합법적 부분파업을 진행했던 아몰로산업노동자들은 누구보다 먼저 개혁에 대한 기대를 포기한 사람일 것이다 ▲아직도 일간지 1면 톱기사로 실린 개혁과 사정만을 볼뿐 은폐되고 왜곡된 실체와 노동자단위의 작은 1.2간 기사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러한 본질을 보지 않기 위해 일부러

사신과 생각을 피한다. 그것이 정치에 대해 일말의 희망을 갖기위한 국민들 나름의 방법인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진정한 정치의 희망은 지금의 국민적식수준에서 가져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5-18 광주민중항쟁 13주년이 며칠 남지 않았다. 광주의 시민들은 지금의 문민정부에서 역사적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해 줄 것이라는 실낱같은 기대를 걸고 있다.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시민대표 15명이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현정권이 역대 군부독재에 대한 명확한 역사적 규명을 해내고 본질적으로 그들과 다른 통치이념을 갖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의 개혁에 대한 기대를 포기한 사람일 것이다 ▲아직도 일간지 1면 톱기사로 실린 개혁과 사정만을 볼뿐 은폐되고 왜곡된 실체와 노동자단위의 작은 1.2간 기사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러한 본질을 보지 않기 위해 일부러



당신의 비전을 실현해드리는
럭키금성의 新制度

CULTURE UNIT



한달동안의 인턴사원 교육과정을 통해, 저는 럭키금성에 관한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이고 화목한 직장 분위기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원들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자세,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객에 대한 봉사정신, 어느 기업보다도 활발하게 추진되는 연구개발 등 - 럭키금성의 실체는 제가 알고 있었던 이미지와는 너무나 판이했기에 저는 저의 좁은 소견을 거듭 절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각 계열사마다 업무스타일이나 분위기가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전지회사는 전지회사대로, 증권회사는 증권회사대로, 종합상사는 종합상사대로, 독창적인 경영스타일과 문화가 두말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알고보니 그들내 사업들을 동일한 사업문화로 가진 사업체제로 구분해서, 그 사업을 가장 잘 아는 경영자에게 경영을 맡기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른바 C.U(Culture Unit) 즉 사업문화단위에 의한 자율경영이죠.
 하긴, 현재에도 성격이나 능력이 전혀 다른게 다반사인데, 같은 그룹이라고 어떻게 똑같은 원칙과 규율을 적용할 수 있었어요? C.U를 이해하고 난 후, 럭키금성의 자율

경영이 확실한 제도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럭키금성은 독자적인 사업문화단위(C.U)를 통해 자율경영의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사원 조성호, 이창환

“계열사마다 업무스타일이나 분위기가 확연히 다른 데에 정말 놀랐습니다”

